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 차인과 도예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다도구 특별 기획전' 모습.

차인과 도예가들이 만나면...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 차인과 도예가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다도구 워크숍'은 차와 어울려 볼 수 있는 다기(茶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도예가에게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차인에게는 다기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제도자협회(IAC,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의 한국총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로,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등을 통해 우리 차문화와 다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경주 기림사 '다도구 워크숍' (8월 19~20일)

제작 체험·특강·전시 등 행사 다채

월간 <Tea&People>이 8월 19일과 20일 경주 기림사(주지 종광)에서 개최하는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에서는 다도구에 관한 특강과 주제발표, 토론, 다구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Tea&People> 김동현 편집장은 "차인과 도예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다도구의 미래와 전망을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단순히 강의만 듣고 가는 행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다도구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째 날인 19일 오후 2시에는 원

로 도예가 홍재표 씨의 '도자다구의 제작과 체험' 시연행사와 함께 김동현 편집장의 '다도구의 기능과 특성', 이병인 교수(밀양대)의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참여 작가들의 대표작품 및 다인소장품 전시가 열린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일송요 황동구 대표의 '차사발의 특성과 제작과정'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대화마당이 이어진다. 이튿날인 20일 오전 8시부터는 기림사를 비롯, 경주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참가를 원하는 차인과 도예가는 8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991-7847

국제도자협회(IAC) 총회(8월 26~30일)

현대 도자 흐름·한국 다기 우수성 재조명

한편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세계도자센터 및 서울 올림픽호텔 등에서 열리는 국제도자협회(IAC) 한국총회에서도 우리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와 IAC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전으로 '한국차문화와 다기전'이 마련돼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천 세계도자센터 제4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은 한국 다기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한국 도자문화의 현대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도자 관련 필

름 상영, 전통가마 불지피기 시연, 전통 차 시음, 한지 제작 시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26일 개막식에는 동아시아차문화연구원(원장 박종춘)의 '선차(禪茶) 문화 공연'이, 27일에는 미산 스님(조계종 총무원 국제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 선예술품(禪藝術)의 세계' 특강이 마련된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이자 비영리 단체인 IAC는 현대 도자의 흐름을 제시하고 도자를 통한 국제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53년 창설된 단체다. 현재 55개국 48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031)631-6612

여수령 기자

다도구 워크숍 일정

19일
14:00~17:00 특강 및 주제발표
1. 인사말-종광 스님(기림사 주지)
2. 도자다구의 제작과 체험-홍재표(원로 도예가)
3. 다도구의 기능과 특성-김동현(월간 <Tea & People> 편집장)
4.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이병인 교수(밀양대)
16:00~21:00 다도구 작품전시 및 감상
18:00~21:00 토론 및 대화

20일
08:00~11:00 문화답사 및 대화
장소:기림사

IAC 한국총회 일정

26일
08:30~09:30 인천 세계도자센터 접수창구에서 참가자 등록
10:00~11:00 IAC총회 개막식 및 태평무 공연
11:00~12:30 강의 / '성리학의 서원건축' -김봉렬
14:00~17:00 광주조선평화박물관 관람
17:00~18:00 전시 개막식
19:00~21:00 환영만찬

27일
09:30~10:00 공연(거문고 독주)
10:00~11:00 강연 / '한국 선예술품의 세계' -미산 스님
11:00~12:00 강연 / '초지역적 문화 속에서 본 세라믹' -이영철
14:00~17:30 여주생화도자관 관람 및 영랑 답사
18:00~19:00 선차(禪茶) 문화 공연
19:00~21:00 전통가마 불지피기 및 사물놀이

28일
09:00~18:00 IAC 회원 총회 및 경기문화 투어
18:30~21:00 IAC 총회 폐막식 및 친교의 밤 행사
28~30일
서울지역 답사: 도예 작가 방문, 종묘 경복궁 인사동 방문

녹차, 여성 위암 예방에 좋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여성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고 절반 이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40~60대 남녀 7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12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의 경우 한 잔 이하를 마시는 여성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암의 아랫부분에서 암이 생길 확률은 하루에 한 잔 이하를 마시는 여성의 약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암과 녹차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국차인련, 지도자 연수회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박관홍)는 '제19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조별 토론회와 행다례 시연, 강연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02)734-5866

한국차문화협회, 하계연수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8월 21, 22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23회 차생활 예정 지도자반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차문화대학원의 발표회와 차생활 예정 지도자반 및 차문화대학원 수료식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 9만원. (02)701-0475

명원다도대학원 수강생 모집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2004년 가을학기 명원다도대학원 다인과정 및 명원 차문화원 인문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9월 10일 개강하는 다인과정은 명원 차문화원 수료자나 다도입문 8년 이상자 또는 관련학과 학위소지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9월 7일 개강하는 명원 차문화원 인문과정은 차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myungwon.org) 또는 전화로 가능. (02)742-7190

우리 사찰 차 모임

부산 흥법사 무진향

끝없는 차향기 내면의 겨울



무진향 회원들이 지난 5월 흥법사 동자승 출가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다도를 가르치고 있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의 다도 모임인 무진향(無盡香, 회장 김정희)에선 향기가 난다. 2003년 10월에 결성돼 그 연륜은 짧지만 회원들이 전하는 차향은 다함이 없다. 기본과 전통을 중시하는 다도 모임인 무진향의 회원은 모두 18명. 그리 많지 않은 회원이지만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다도를 생활화 해온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무진향을 만들면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갔다.

한 다도시연, 허공마저바라밀제 다도시연 등 무진향의 향기는 두루 퍼져 허공을 채웠다. 특히 초등학교 생들을 위한 다도교실은 무진향 회원들에게 차를 배우고 익힌 보람을 만끽하게 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 했는데 다도 시연이 시작되자 회원들의 입수거림투족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정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희 회장은 차가 세대와

다도 예절위해 절하는 법 3개월 간 교육

'외국인과...문화기행' 등 차 홍보에 진력

박사자 동다송문화원 원장을 지도 강사로 초빙하면서 그간 배웠던 다도를 모두 잊고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도에 관한 이론, 실습과 예절 교육을 병행하면서 회원들의 활동도 서서히 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흥법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무진향 회원들은 몸매인 예법으로 다도를 선보였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과 전통을 알리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에서도 무진향의 다도 시연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성년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

인종을 뛰어넘는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차에 더욱 매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진향 회원들이 말하는 차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는 나와 타인을 잇는 매개인 동시에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회장과 양옥희 총무는 "차를 배우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이라며 "행다법을 배우며 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 마음을 모으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아 기도의 시간이 되곤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인터뷰

김정희 회장



하심·배려의 마음으로 봉사

"차를 알리고 차를 대접하는 활동 외에도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차향을 전하는 몸짓이 되어야죠." 하심과 배려로 봉사를 강조하는 무진향은 도량 내 잡초 뽑기, 공양 시간 배식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도 교실과 예절 교실을 열고 싶다"는 김정희 회장은 "많은 이들이 차를 통해 차분해지

고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진향은 다도를 지도하는 박사자 선생님의 독특한 수업방식인 1분 스피치 덕분에 2기생 모집을 앞두고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051)508-0345

2004년 해인사 차문화 수련법회 안내

장마의 빗줄기가 창밖의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이때 향긋하고 맛깔스럽게 우려낸 차잔에서 편안함과 푸근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야산 흥류동 계곡의 한켠에 자리 잡은 해인사에서 차 한잔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인사 다경원은 이슬처럼 맑은 물과 차향의 은은함, 자신의 심신을 맑히고, 좋은 벗들과 함께 하는 차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학인스님들의 모입니다. 다경원은 차문화 수련법회를 아래와 같이 1200년 불교문화의 종가인 가야산 해인사에서 갖고자합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산사의 향음에서 차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 주 제: 차와 나의 부처님과 인연
- 입 재: 2004년 8월 28일(음 7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 회 향: 2004년 8월 29일(음 7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해인사 보경당
- 참가대상: 차와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특강강사: 박희준 (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
여상명 (도예가: 전통장작가마 발달가마)
법진스님 (해인사 강원 대교장사)
- 참가인원: 120명(선착순 마감)
- 참가비: 4만원
- 접수안내: Tel. (055) 934-3081
● 카페: http://cafe.daum.net/darokyungkuen
● E-mail: whd-rhkd01@hanmail.net
kmbin@hanmail.net
- 신청 온라인 계좌: 농협 843174-52-023648 (해인사 다경원)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패독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업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hajun2000@dreamwiz.com
*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